전법 일기

부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若有人兮山之阿(약유인혜산지아)
被薜荔兮帶女蘿(피벽려혜대여라)
既含睇兮又宜笑(기함제혜우의소)
子慕予兮善窈窕(자모여혜선요조)
乘赤豹兮從文貍(승적표혜종문리)
辛夷車兮結桂旗(신이거혜결계기)
被石蘭兮帶杜衡(피석란혜대두형)
折芳馨兮遺所思(절방형혜유소사)

누군가 있는 듯한 산모퉁이에/ 벽려 옷을 입고 덩굴 띠를 두르고/ 정겹게 곁눈질하며 미소를 짓는/ 그대 내 아리따운 자태 좋아서여라/ 붉은 표범을 타고 얼룩 너구리 데리고/ 목련 수레에는 계수나무 깃발을 매었네/ 석란 옷 입고 두형 띠 두르고/ 향기로운 꽃 꺾어 사모하는 이 드리고파

중국 고전 〈초사(楚辭)〉에 실린 굴원(屈原)의 '산귀(山鬼)'라는 시의 첫 부분이다. 제목인 산귀가 뜻하는 바는 산에 사는 신령스러운 여신이라고 한다. 아직 산에 오른 날들이 적어서 그런지 산의 여신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늘 산의 넉넉한 품과 차분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산이 나를 보살피는 느낌이 들게 한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에 대한 국민 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산에 대한 사랑과 등산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 나도 지난 2023년 범어사 불자님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영남알프스 9봉 완등'에 도전했다.

인증 어플리케이션으로 완등 인증을 하면 매년 3만개 한정 기념은메달(한국조폐공사 제작)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모두 마감될 만큼 인기가 높다.

좋은 불자님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지만, 산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이들과의 만남도 좋은 추억을 남겨 주었다. 등산은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들 간에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내 걸음이 느리면 뒷사람을 위해 좁은 길에서 순서를 양보하기도 하고, 정상에서는 초면인 등산객들과 덕담을 건네며 간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같은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서로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돌이켜보면, 불교라는 산에서 만난 이들이 대개 이와 같았다. 순수한 호의와 배려를 가진 이 좋은 사람들을 부처님 법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어찌 만날 수 있었을까.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나는 늘 이 한마디를 건넨다. 배낭에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너무 비우면 불편해서 괴롭고 너무 채우면 무거워서 괴롭다고. 함께 산을 오르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삶을 닦아나가는 도반들에게도 이 한마디를 드리며 4주 연재를 마칠까 한다.

부처님의 품 안에서, 내내 평안하시길.



범어사 전 포교국장 눌은 스님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④ 사춘기의 이해(1)

사춘기, 독립을 위한 몸부림의 시간

해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사춘기의 이해 특강을 한다. 중학교 들어올 무렵 시작한 사춘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절정을 이루고 3학년 때 조금 시들했다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철이 들어 점잖아지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다. 그럼 대체 사춘기는 무엇이고, 또 왜 찾아오는 것일까? 사춘기(思春期)는 말 그대로 '봄을 생각하는 시기'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춘정(春情)'을 생각하는 시기이다. 춘정은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 후손 볼 나이가 되어 짝을 찾아 어른으로 독립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크게 '사고·감정·의지'로 이뤄졌다. 그중 가장 힘이 세고 본능에 가까운 '의지'는 우리 몸으로 치자면 단단한 뼈에 가깝다. 우리 몸 중 뼈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치아이고, 이 치아가 바로 우리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유치가 완성되는 3세,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7세, 그리고 영구치가 완성되는 15세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미운 일곱 살' '인생에 방향성을 고민하는 지학(志學)' 등 특별한 수식들이 붙는다. 그중 압권은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공포의 중2병, 즉 사춘기다. 의지가 절정을 발하는 시기이며, 내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위한 몸부림의 시기이다.

사춘기는 우선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몸집이 성인처럼 커지기 시작하고, 성기에 음모가 나기 시작한다. 남자아이들은 정액이 생산돼 몽정을 하며, 변성기가 찾아와 목소리가 굵어진다.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커지고 생리를 시작한다. 앞서 말한 후손 볼 나이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성적 관심과 환상이 고조되며 연예인에 깊이 빠지기도 한다.

또 '자율성'이 극에 달해 잔소리를 하면 그게 자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 온갖 짜증으로 화답한다. 혹시 자신의 아이가 삐뚤어지기를 바란다면 잔소리를 많이 하면 된다. 착한 아이도 청개구리처럼 금세 삐뚤어진다. 이때 아이들은 '흑백논리'가 강해 이 세상을 친구 아니면 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부모를 적으로 간주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소화하지 못한 내적·외적 자극을 쉴 새 없이 '욕설'로 뱉어낸다. 마치 낯선 여행에서 새로 물을 갈아먹으면 그게 몸에 받지 않아 설사를 하듯이 말이다.

자녀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면 '잔소리 금물'
흑백논리 강한 시기, '친구 아니면 적' 인식
잔소리 심하면 부모를 적으로 간주해 갈등

하지만 이런 욕설은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철이 들면 저절로 사라진다. 또 강한 힘을 경험하고 싶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세를 과시하길 좋아한다. 덩치는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애기라 친구들과 뭉쳐 다녀야지만 소속감과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심력처럼 퍼져가는 자기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구심력처럼 안으로 수렴하는 '객관적 시선'이 생겨난다. 남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데, 자기 혼자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과장해서 고민한다. 그래 자주 하는 말이 '아, 쪽팔려'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춘기 아이들을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부모는 이제 처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 드디어 수행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장애·비장애' 경계 넘어서려면

장애인의날이었던 4월 20일,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가 개최한 토론회 '장애인의 날, 마음열어 대화하기'에 발제자로 동참했다.

'내가 생각하는 장애·우리가 함께하는 장애'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10명이 발제자로 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장애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교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또 장애인들이 사회 변화 속에서 대중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소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 작은 토론회는 보리수아래가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시행해왔던 사업들과 맥을 같이했다. 보리수아래는 그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하나로 다수의 자료집을 제작 보급했고 콘서트와 시집 발간 등 장애인들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회 구조가 법률 제정, 각종 편의시설 설치, 직업, 문화 등 대부분의 환경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사찰의 편의시설, 불교문화 활동 등 불교계에서도 장애인불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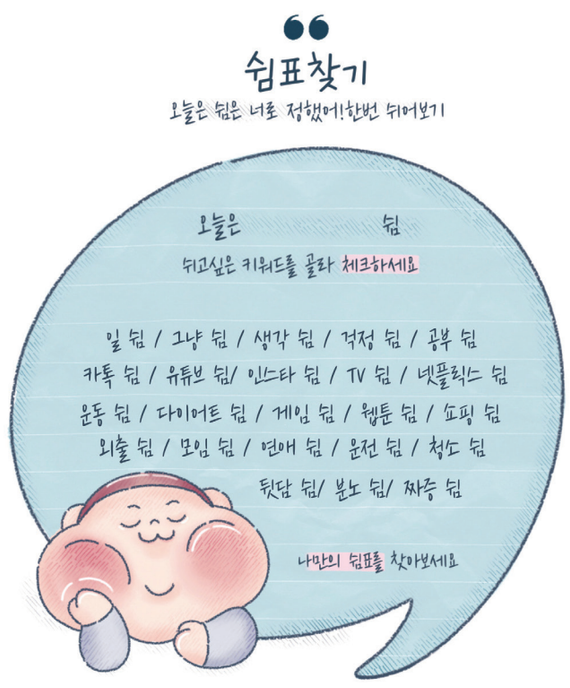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나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편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대할 때 어색함이나 머뭇거림은 쉽사리 극복하기 힘든 과제다.

올해로 제44회를 맞은 장애인의날. 양보하고 더불어 함께 살 것을 알려주셨던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굳이 정해진 날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 이해하면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 교감은 따뜻한 배려로 이어지고 장애·비장애를 넘어 진정한 도반으로 함께하는 첫발이 될 것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전재산 다 팔았지만 아들 혈액암치료비 막막

몽골 아나르군, 림프종혈액암에 장기치료 불가피
미납된 병원비만 6천만원…후원받기도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